Digital & IT

스마트폰 대격돌

아이폰 상륙에 옴니아2·구글폰 맞불

애플사 28일 출시… 멀티 터치로 무장

국내업계 가격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

아이폰

'옴니아2'

애플(Apple) 아이폰이 오는 28일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 전 세계적으로 3천400만대가 판매된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확정되자 국내 업계는 가격인하는 물론 잇따라 새 제품을 내놓는 등 맞불 작전이다. 외국 휴대전화의 무덤이 됐던 국내 통신시장에 아이폰 출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아이폰, 오는 28일 서울서 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사업(LBS)을 신청한 5개 사업자 가운데 애플코리아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키로 의결했다.이로써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국내 시판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애플은 이에 따라 아이폰 3G'와 '아이폰 3GS' 등을 오는 28일 인터넷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일반 시판은 다음달부터 진행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은 '멀티터치'.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두 손가락으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등의 조작이 가능하다. 애플의 콘텐츠 오픈 마켓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를 통해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은 물론 게임이나 음악 등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로 무선랜(WiFi)에 접속해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이번에 판매될 아이폰의 요금제는 지난 10월 출시된 KT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3만5천~9만5천원별로 최소 100메가바이트(MB)에서 최대 3천MB까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정된다. 시판 가격은 2년 약정에 4만5천원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월 1만원씩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1만~12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옴니아2·구글폰 등 아이폰 대항마 자청= 아이폰에 맞서기 위해 국내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SK텔레콤을 통해 스마트폰 'T옴니아2'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최근 하루 개통 대수가 1천200대를 기록하며 휴대폰 신제품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해 옴니아2의 가격을 다소 낮출 것을 모색 중이다.

또 SK텔레콤은 아이폰의 대항마로 구글폰을 내세우고 있다. 구글폰은 인터넷 사이트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해 구글 검색, G메일, 유튜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LG텔레콤도 경쟁사들에 비해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내놓고, 연내 무선랜과 윈도 모바일 6.5 운영체제를 탑재한 LG전자 레일라(LG-LU 2100)와 삼성전자 오즈 옴니아 등 2종의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가입자 확보 및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대중화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내년에는 안드로이드폰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폰을 출시해 스마트폰 라인업을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신세계서 '강진특산물전' 18일 오전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시작된 '제8회 청자골 강진군 향토 특산물전'에서 황주홍 강진군수 등이 특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22일까지 계속되는 특산물전에는 강진군의 농수축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공예품까지 모두 40여 종의 특산물이 판매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빵·햄버거·피자도 영양표시

패스트푸드점 등 의무화

내년부터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빵과 아이스크림, 햄버거와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영양표시 규정을 담은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각 매장에서 연중 90일 이상 판매하는 메뉴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의 80% 이상의 크기로 명시해야 하며 그밖에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리플릿이나 홈페이지,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로, 총 31개 기업, 9천891개 매장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광주 교원 경제교육 워크숍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광주시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워크숍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첫 경제교육으로 광주지역 초·중·고교 교감과 사회과 교사들이 참가한다.

워크숍은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8일 열린 첫번째 워크숍에선 홍덕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FTA의 이해와 의미'를, 윤성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이 '경제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사진〉

광주시교육청 박병철 과장은 "연수대상에 따라 주제를 다르게 하는 맞춤형 워크숍으로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윈도7 탑재 PC '날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출시한 운영체제(OS)인 윈도7을 탑재한 데스크톱과 노트북의 판매량이 빠르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온라인몰 업계에 따르면 롯데닷컴에서는 PC 판매량이 지난달 셋째주(12~18일)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윈도7이 탑재된 PC를 예약판매하기 시작한 같은 달 19일부터는 이전보다 매주 2배가량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이달 첫째 주(2~8일) 기준으로 윈도7을 탑재한 PC의 매출액은 7억원에 달했다.

옥션에서도 지난달 22일 윈도7이 출시된 이후 PC의 하루평균 판매량이 지난달보다 15%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하루평균 판매량에 비해서도 약 20% 판매량이 뛰어올랐다.

실제 PC 제조사들은 윈도7 출시 직후 멀티터치 기능 등 새 OS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제품 PC를 대거 출시하고 있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윈도7 PC의 출시일이 알려지자 노트북 구입을 잠시 보류했다가 출시 후 사려는 고객들 때문에 지난달 초 관련 매출이 급감했었다"면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윈도7 환경에서는 기능게임이 가능한 점 등이 인기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